

# 베트남 투자뉴스

제760호, '21.6.21.

kotra  
하노이무역관

VIETNAM  
INVESTMENT  
NEWS

# 베트남 투자뉴스 제760호



안녕하십니까,

**KOTRA 하노이무역관의 베트남 투자뉴스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뉴스 본문은 상단의 **PDF 첨부파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760호** (6월 21일자) 주요 내용은 우측  
헤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 3

- 산업무역부·교통부, 전기차에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중국 알리바바, Masan 유통 간회사 더크라운 엑스에 4억 달러 투자
- SK인베스트먼트 비나, 베트남 이맥스팜 지분 24.02% → 29.2% 확대
- 일본, 베트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백만회분 지원, 호치민에 배정
- 삼성, 베트남에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기금으로 총 240만 달러 지원
- 바리아-붕따우성, 고강섬에 신규 공항 건설 예정

##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 5

- 베트남 조세유 시장동향

##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 6

- 금주의 통관 Q&A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 7

- 2021년 6월 15일 업데이트

## 노동허가 이슈 관련 베트남 정부 답변 ..... 11

- 한-베 공동으로, 당초 5월 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노동허가 이슈 관련 간담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어 관련 답변을 정리 및 첨부합니다.

#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 산업무역부·교통부, 전기차에 인센티브 지원 검토

산업무역부는 향후 5년간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특별 소비세와 취득등록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교통부 또한 전기차 대상 인센티브를 지지한다고 표명했음. 이는 베트남 정부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부합함. 현재 9인승 전기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15%이고 취득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10~12%임. 산업무역부는 이에 대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10월에 빈그룹의 제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그러나 재정부는 베트남에는 아직 전기차 충전소 시설이 미비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베트남 전체 전력 생산량의 4.3%에 불과하다고 덧붙임.



[VNEXPRESS, 6.14.]

## 중국 알리바바, Masan 유통 자회사 The Crown X Corporation에 4억 달러 투자



자료: VIR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Alibaba 그룹과 Baring Private Equity Asia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베트남 마산 그룹의 유통 자회사 'The Crown X Corporation'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지분 5.5%를 인수함. The Crown X Corporation은 Masan Consumer Holdings와 VinCommerce에 합병한 유통 자회사임. 마산은 The Crown X Corporation의 지분을 80.2% 소유하고 있음. The Crown X Corporation은 베트남의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 'Lazada'와 협력하여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베트남의 온라인 시장 발전 또한 가속화할 것을 덧붙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6.14.]

## SK 인베스트먼트 비나,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기존 24.02%에서 29.2%로 확대

SK 인베스트먼트 비나III는 이멕스팜 (Imexpharm Pharmaceutical JSC)의 주식 34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기존 24.02%에서 29.2%로 지분 5.18%p를 확대함. 이멕스팜은 항생제 및 관절 질환 치료제에 강점을 보이는 베트남 5위 제약사 이멕스팜의 올 5개월간 매출액은 2,2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함. 한편 베트남 제약 시장 규모는 2019년 65억 달러에서 2026년 16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 할 전망이다.



자료: VIR

[Vietnam Investment Review 6.15.]

#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 일본, 베트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백만 회 분 지원, 호치민에 배정



자료: VTV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팜 민 쯌 총리와 일본 스가 총리의 전화 회담에서 일본이 베트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 분 지원을 약속했다고 발표함. 일본에서 지원한 백신은 16일 22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으며 17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4차 유행을 겪고 있는 호찌민 시로 이동 될 예정임.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재베트남 일본 상공회의소(JCCI) 소속 36개 기업이 베트남에 코로나19 백신 기금 약 392억 베트남 동을 기부하겠다고 밝힘.

[VTV 6.15.]

## 삼성, 베트남에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기금으로 총 240만 달러 지원

6월 16일, 삼성 베트남은 60억동 (3억원) 규모의 전문 의료 장비를 기부한 공로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로장을 받음. 현재까지 삼성베트남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예방 기금으로 100억동 (5억 원), 2021년 6월 5일 코로나19 백신 기금으로 400억 동(2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음. 이번 의료장비 기부를 통해 삼성은 총 560억 동 (240만 달러, 한화 약 28억 원) 규모의 코로나 19 방역 기금 및 백신 펀드를 베트남에 기부함.



자료: VTV

[Vietnam News 6.16.]

## 바리아-붕따우성, 고강 섬에 신규 공항 건설 예정



자료: Vnexpress

바리아-붕따우성은 소음, 공기오염이 심한 붕따우 공항을 대체하는 신규 공항 건설을 최종 승인함. 신규 공항 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9조 베트남동, 총 면적은 248.5 헥타르이며, 붕따우 도심 밖 롱선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공항이 완공되면 172헥타르 규모의 기존 붕따우 공항은 베트남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기지 및 군사 비행장으로 운영 할 예정임.

[Vnexpress 6.17.]

#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조제유 시장동향

- 시니어 밀크 분야 성장 기대 -  
- 프리미엄 및 기능성 유제품 수요 증대 예상 -

### 시장규모



자료: Euromonitor, YCP Solidiance Research,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의 조제유제품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13억8600만 달러 대비 0.93% 감소한 13억7300만 달러였다. 이 중 조제 분유는 전년대비 1.65% 감소한 12억4600만 달러였으며, 액상유는 전년대비 5.88% 증가한 1억2600만 달러였다.

### 베트남 조제유 시장 트렌드

#### 노인을 위한 분유는 있다, 시니어 밀크 시장 확대

베트남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10개국 중에 하나이다. 베트남 통계청은 2017년 베트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1.95%인 약 1100만 명이었으나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인 21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으나 베트남은 20년도 채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유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 프리미엄 우유 및 분유, 유제품 시장 주도 예상

SSI Research는 프리미엄 우유가 향후 3-5년 내에 유제품 시장을 주도 할 것이며, 분유 또한 프리미엄 제품이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SI Research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유행할 것이 상대적으로 짧은 견과류 및 곡물유를 선택하고 분유의 경우 당노화자를 위한 특수조제유나 칼슘을 강화한 분유 등 기능성 분유가 인기를 얻을 것이며 영양을 강화한 기능성 조제유를 판매하는 Abbott, Friesland 및 Campina 등은 향후 베트남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베트남에 유통되는 한국산 조제유

베트남에서 판매 중인 시니어용 조제유 한국 제품은 대성 Wellife의 뉴케어의 제품이고, 이를 Tiki, Lazada 등 베트남의 대표 전자상거래 물에서 공식 브랜드 페이지를 개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하노이 중심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현지인들과 한국인들을 함께 공략하고 있다. 베트남의 건강 기능식품은 아직 병원이나 약국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서 오프라인 판매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 관세율 및 관련 규정

베트남으로 조제유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Law No.54/2014/QH13)에 의거하여 몇 가지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 통관 신고를 하게 된다.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는 2015년 1월 21일 자 시행령(Decree No. 03/2015/ND-CP)으로 규제되며 통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2015년 3월 25일 자 시행규정(Circular 33/2015/TT-BTC)을 참고하면 된다. 베트남으로 수입품을 통관 신고할 경우 판매 계약서 복사본(Commercial Contract), 상업송장 복사본(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 원본(Packing list), 선하증권 복사본(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 원본(Certificate of origin)이 필요하다.

### 시사점

베트남의 유제품 시장은 앞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베트남 조제유 부문은 베트남 현지 기업 Vinamilk, NutiFood와 다국적 기업 Nestle, Abbott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신규 진출 기업이 기존 브랜드 인지도를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조제유로 수입 인증을 받는 것은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유제품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Vinamilk가 일본의 식품 업체들과 협력해 일본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고급화한 제품을 출시했듯이 한국의 유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베트남 현지 업체와 협력을 맺어 진출한다면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의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됨에 따라 기능성 우유 및 프리미엄 우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반 우유가 아닌 프리미엄 우유 및 분유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 식음료 관련 전시회 일정

2021년 베트남에는 다음과 같은 식음료 관련 전시회가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베트남에 와서 참가하는 것이 힘들 경우 화상 상담회 또는 전시회가 병행하여 진행된다. 다음 전시회에서 베트남의 식음료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VIETFOOD & PROPACK VIETNAM 2021

- 전시일정: 2021년 11월 17~20일
- 장소: 호찌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센터(SECC)
- 웹사이트 링크: [VIETFOOD & PROPACK 2021](#)

#### ILDEX VIETNAM 2022

- (제8회 국제 유제품, 육가공품 및 수산물 전시회)
- 일시: 2022년 3월 16~18일
- 장소: 호찌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센터(SECC)
- 웹사이트 링크: [ILDEX 2022](#)

#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TA 관련 Q&A

## \*\* 베트남 수입통관과 부가가치세 \*\*

### Q :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 및 환급 방법은?

A : 부가가치세는 내국 소비세의 일종으로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은 수입 후 베트남 국내에서 사용,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부과징수 되는 것이며 이후 국내판매 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분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됩니다(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 국내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됩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지불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관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공급받는자에게 부과된 매출부가세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입부가세의 공제를 위해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입 후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가 부담하고 사용한 것으로 **환급 없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 (2) 수입 후 국내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최종 소비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판매 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입시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므로, 해당 세액 만큼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이며 **사실상의 환급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 (3) 수입 후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수출에 대한 납부세액이 0이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존재하므로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게되어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에게 **해당분기 실제 환급이 진행되기보다는 추후 환급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유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제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



2021년 6월 15일 기준

##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5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5.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076	71,854.60	151	447.91	1,830.33
일본	4,701	63,241.23	71	1,830.01	2,590.08
싱가포르	2,706	61,842.90	77	4,443.80	5,262.89
대만	2,818	34,719.01	28	90.37	834.89
홍콩	1,977	26,738.00	40	798.48	917.51
버진아일랜드(영)	865	22,084.09	10	78.88	151.42
중국	3,211	19,691.24	78	599.64	1,152.79
말레이시아	652	12,980.54	4	8.60	22.58
태국	615	12,727.17	10	55.64	176.25
네덜란드	377	10,328.73	10	86.52	141.74
미국	1,095	9,543.84	19	148.82	182.13
<b>전체 합계</b>	<b>28,093</b>	<b>345,751.35</b>	<b>498</b>	<b>8,588.67</b>	<b>13,262.61</b>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연번	구분 산업	2021. 5.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5.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323	232,778.51	215	2,571.41	6,139.42
2	부동산경영	955	61,018.88	15	4,990.52	5,426.5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66	33,733.78	19	740.17	1,049.45
4	호텔, 외식서비스	895	12,521.62	177	319.35	521.90
5	건설	1,759	10,685.21	79	47.50	320.94
6	도소매, 유지보수	5,342	8,835.50	17	125.59	160.59
7	물류운수	887	5,500.45	2	8.68	81.90
8	채광	107	4,894.76	47	6.89	63.31
9	교육, 양성	596	4,423.02	-	-	54.53
10	정보통신	2,369	4,026.77	7	0.72	50.46
11	농, 임, 수산	3,610	3,845.10	11	5.67	46.43
12	예술 오락	505	3,687.22	13	8.11	44.34
13	기술과학전문	138	3,393.57	1	1.01	20.1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897.03	10	2.03	10.8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1.73
16	행정, 지원 서비스	500	978.50	-	-	1.21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	-	1.19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0.21
19	기타산업	7	11.07			
	<b>합계</b>	<b>33,615</b>	<b>396,862.66</b>	<b>613</b>	<b>8,827.66</b>	<b>13,995.08</b>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주요 경제 지표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5
수출	2,447.2	2,634.5	2,814.7	1,169.7
수입	2,375.1	2,535.0	2,624.0	1,162.4
무역수지	72.1	99.5	191	7.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9,078	51,827	50,880	21,887
전기전자제품/부품	29,321	35,591	44,668	19,547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49	18,304	27,042	14,873
섬유/직물제품	30,449	32,571	29,478	12,211
신발류	16,238	18,299	16,551	8,461
원목 및 목제품	8,909	10,526	12,323	6,598
수송수단 및 부품	7,964	8,500	9,058	4,437
철강제품	4,549	4,160	3,035	3,557
수산물	8,795	8,572	8,384	3,236
원사(Yarn)	4,025	4,142	3,699	2,165
기타	67,606	71,697	76,353	34,338
합계	243,483	264,189	281,471	131,31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21년 5월 순위기준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5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27,42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18,65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7,456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5,991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4,968
철강제품	9,896	9,485	4,526	4,647
자동차 및 부품	5,382	7,426	6,272	3,636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3,555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3,362
화학품	5,163	5,098	4,953	3,213
기타	88,787	92,931	95,322	48,402
합계	236,688	253,070	262,407	102,60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21년 5월 순위기준



# 주요 경제 지표

##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37,438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20,283
<b>3</b>	<b>한 국</b>	<b>14,823</b>	<b>18,205</b>	<b>19,720</b>	<b>19,107</b>	<b>8,749</b>
4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8,270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4,616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3,267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2,977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2,543
9	태 국	4,786	5,494	5,272	4,917	2,507
10	영 국	5,424	5,776	5,758	4,955	2,360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30,321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104,941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21년 5월 순위 기준

##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43,790
<b>2</b>	<b>한 국</b>	<b>46,734</b>	<b>47,497</b>	<b>46,935</b>	<b>46,895</b>	<b>20,966</b>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8,839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8,458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6,438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5,430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3,503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2,933
9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2,916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2,767
	기 타	40,514	47,063	47,976	48,826	22,829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128,869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21년 5월 순위 기준



# 주요 경제 지표

##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4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17,094(16.1)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7,974(17.0)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9,121

자료원 : KITA

##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OLED	4,802(145.0)	6,373(32.7)	6,204(-2.7)	8,069(30.1)	2,735(51.7)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4,822(170.3)	5,322(10.4)	4,746(-10.8)	5,718(20.5)	1,539(-21.2)
메모리반도체	2,926(76.1)	3,506(19.8)	3,674(4.8)	3,101(-15.6)	1,467(63.2)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3,172(-36.1)	2,513(-20.8)	2,791(11.1)	3,248(16.4)	994(7.6)
기타집적회로반도체	890(42.3)	1,176(32.2)	1,345(14.3)	1,646(22.4)	567(-7.3)
인쇄회로	2,099(63.8)	1,773(-15.5)	1,586(-10.6)	1,585	476(-3.4)
기타개별소자반도체	453(3.6)	2,519(-1.2)	1,750(-30.5)	765(6.4)	304(44.4)
편직물	1,118(3.8)	731(61.4)	719(-1.7)	850(-14.6)	300(13.9)
LCD	2,550(393.8)	1,107(-1.0)	996(-10.0)	1,465(-16.2)	300(-33.4)
자동차부품	382(-13.0)	464(21.4)	649(39.9)	651(0.2)	296(89.6)
기타	24,540	23,137	23,719	21,407	8,117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17,094(16.1)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21년 4월 순위 기준

##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2,864(38.8)	3,489(21.8)	4,087(17.2)	3,195(-21.8)	1,068(-8.8)
휴대용컴퓨터	231(152.0)	269(16.7)	342(27.2)	758(121.3)	540(211.6)
기타무선전화기	833(151.5)	1,004(20.5)	1,087(8.3)	1,048(-3.6)	456(26.1)
기타신발	353(20.5)	453(28.2)	517(14.2)	524(1.2)	210(2.1)
스마트폰	345(28.3)	416(20.7)	437(5.0)	428(-2.0)	190(21.2)
무선충전기	100(-35.2)	131(31.1)	256(95.0)	372(45.4)	180(42.1)
LCD TV(디지탈의 것)	380(37.5)	351(-7.4)	337(-4.2)	394(16.9)	171(21.9)
언더셔츠	197(23.3)	251(27.2)	303(20.8)	262(-13.3)	159(18.6)
남성마지	305(19.2)	341(11.8)	361(6.0)	303(-16.1)	151(15.2)
기타목재류	296(16.7)	495(67.2)	377(-23.7)	352(-6.8)	136(24.9)
기타	10,272	12,432	12,967	12,943	4,712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7,973(17.0)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21년 4월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 · 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1.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Q> 노동허가(work permit)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베트남의 경쟁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각부처 ·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 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 2.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Q>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 취업의 장애 발생.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 마련 요청

\* 동 MOU에 따라 학력 · 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 발급  
\*\* (구)시행령(11/2016/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 · 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 (개정)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베 정부>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해 전문가/운영감독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정 가능성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 · 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Q>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족의 어려움

<베 정부>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도 노동허가\* 신청 가능  
\* 관리자: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 · 조직의 대표자 · 부대표자, 별도 인정요건 없음  
운영감독자: 기관 · 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를 운영하는 부서장, 별도 인정요건 없음  
기술자: 훈련1년+경력3년 또는 경력5년

## 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Q>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 (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베 정부>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 · 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 5. 전공 불일치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대,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베 정부>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 · 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업무명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중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 · 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6. 한국의 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Q>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 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베 정부>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 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 주면 직접 이슈를 해결하겠습니다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을 베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기발송

## 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Q>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 · 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함

<베 정부>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Q>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 지연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 안내하겠습니다.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